

최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선 거의 대부분 스트리밍 (Streaming)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작자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.

이 스트리밍 (Streaming)이란 단어의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. 스트리밍이란 데이터를 로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. 즉, 스트리밍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(로드하는)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.

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온 만큼 볼 수 있는 기술을 스트리밍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.

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는 데이터를 전부 받아와야지 받아온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용량이 큰 이미지나 동영상을 볼려면 한참 기다려야만 했습니다.

스트리밍이란 개념이 나오면서 데이터를 다 받아와야지 볼 수 있는게 아닌 받아온 만큼 조금씩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
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를 볼 때 큰 이미지의 경우 점차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.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스트리밍 기술 덕분입니다.